유·스퀘어 10주년 ♪ 7인의 독주회

9월 27일	9월 29일	10월 4일	10월 6일	10월 10일	10월 25일	11월 8일
피아노	오보에	비올라	피아노	클라리넷	바리톤	바이올린
최현호	김영주	이한나	문현옥	주민혁	공병우	이미경

27일~11월 8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서

지역 출신 라이징스타부터 세계적 연주자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지난 2006년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유·스퀘어라는 이름을 달았다. 이후 2008년에는 동산아트홀, 금호아트홀, 금호갤러리,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구성된 문화관을 오픈, 광주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양분을 선사해왔고 2013년 한국메세나협회가 주는 문화경영상을 수상했다.

유스퀘어문화관 중 특히 금호아트홀(306석)은 지역 유일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지역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피아노의 거장 백건우를 비롯해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트, 손열음, 권혁주, 김태형, 노보스 콰르텟, 김다솔, 김다미, 에드워드 아우어, 양성식, 비르투오지 앙상블, 이상엔더스 등 수많은 정상급 연주자들이 다녀갔다.

유·스퀘어 개관 10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는 27일부터 11월 8일(오후 7시30분)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피아노, 오보에, 비올라, 클라리넷, 성악, 바이올린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지역 출신 라이징 스타부터 세계적인 연주자까지 7명의 독주회를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이다.

첫 테이프는 피아니스트 최현호가 끊는다. 제 1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출신으로 베를린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한국리스트 콩쿠르 1위를 수상하는 등 수많은 콩쿠르에서 이름을 알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주자다.

29일 열리는 두 번째 공연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오보이스트로 활동중인 김영주가 감성을 울리는 섬세한 소리로 라벨의 '소나티네' 등을 들려준다.

10월 4일 세 번째 공연에는 2004년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를 통해 데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올림푸스 앙상블 멤버 등 실내악 연주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이한나가 출연한다.

또 10월 6일에는 피아니스트 문현옥(전남대 교수)의 독주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10일 무대는 광주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상임 수석인 클라리네스트 주민혁이 브루노 가이너의 곡등을 연주한다.

여섯번째 주자는 바리톤 공병우 전남대 교수다.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쥔 그는 25일 무대에 오른다.

피날레 무대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이미경 뮌헨 국립대 교수가 장식한다. 11월 8일 무대에 오르는 그녀는 퀼른 국립음대콩쿠르, 전 독일 대학콩쿠르 1위를 비롯, 뮌헨의 ARD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했다. 전석 2만원. 문의 062-360-8437, 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

전남문화관광재단 27일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세계 유명 무대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 대표 넌버벌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무대에 올린다. 23일 오후 7시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비보이와 발레리나의 순수한 사랑을 대사 없이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표현한 무언극 뮤지컬로 지난 2005년 초연 이후 1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초청공연은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비롯해 오는 11월까지 '로미오와 줄리엣'(10월 30일), '당신은 바비레따에 살고있군요'(11월 6일) 총 3편의 우수공연작품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61-981-02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연 독주회

내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연 독주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김씨는 광주예고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 점수로 마쳤다. 또 독일 Lepthien 피아노콩쿨 2위, 이태리 Vietri sul Mare 국제 콩쿠르 등에서 수상했다.

광신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씨는 현재 광주 피아노아카데미, CN Piano, 연우회 회원, 한국피아노학회 연주분과 연구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연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8번 A장조', 리스트의 '에스파뇰 랩소디' 등이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기부로 행복한 문화광주

세계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미국 워싱턴 D.C는 문화수도로도 유명하다. 세계 최대의 복합문화공간인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션(스미스소니언)을 비롯해 워싱턴 국립미술관, 필립스컬렉션, 코코란 갤러리 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미스소니언은 워싱턴 D.C의 랜드마크다. 도시의 심장부인 내셔널 몰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항공우주미술관, 프리어 & 새클러 갤러리, 허시혼 미술관& 조각공원 등 산하에 16개의 미술관을 거느리고 있어서다.

그중에서도 현대미술만을 전시하는 '허쉬혼 미술관 &조각공원'은 가장 목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미술관의 설립자는 라트비아 이민자 출신의 사업가 조셉 허쉬혼(1899~1981). 1950년대 우라늄에 투자해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그는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작가들의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에는 앤디 워홀의 '자화상', 에드 워드 호퍼의 'Eleven A.M',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의 '비디오 성조기' 등도 들어있다.

80살이 될 무렵, 컬렉션이 6천여점에 이르자 그는 후손들에게 가보로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만인의 행복'을 위해 스미소니언에 기증했다. 스미스소니언은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미술관 명칭을 허쉬혼 미술관으로 정했다.

허쉬혼 미술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건물 주변의 야외조각공원이다. 19세기 로댕의 '칼레의 시민'을 비롯해 브루델, 마티스, 피카소, 헨리무어,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내로라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일상의 여유와 삶의 활력을 얻는다.

사실 미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생활화된 '기부천국'이다. 스미스소니언의 경우 1846년 영국 출신의 과학자 제임스 스미슨(1765-1829)이 미국 정부에 기부한 50만 달러가 씨앗이 됐고 '내셔널 트레저'로 불리는 워싱턴 국립미술관은 금융인인 앤드류 W.멜론, 필립스 컬렉션은 기업가 던컨 필립의 '통큰 기부'가 밑거름됐다.

최근 광주에서도 기부가 모태가 된 야외조각공원이 탄생해 화제다. 지난 12일 남부대 우암동산에 모습을 드러낸 '정윤태 조각공원'이다. 원로 조각가 정윤태(70·전 조선대 미대학장)씨와 제자들이 학교 측에 기증한 28점으로 꾸며졌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00여 억 원이 넘는 규모다. 노 작가는 "학업과 일상에 지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사색과 여유의 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놓게 됐다"고 한다.

비단 정씨만이 아니다. 근래 지역에선 한국화가 금봉 박행보, 서양화가 오승우·강철수, 사진작가 강봉규씨가 자신들의 예술혼이 깃든, 분신과 같은 작품들을 잇달아 기증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단지 예술품을 재테크 수단이나 가문의 유산으로 여기는 일부 상류층의 이기주의와 대조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득, 정윤태 조각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마음이 따뜻해진다. 기부는 도시를 빛내고 세상을 바꾸는 묘약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예총 레지던시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광주예총(회장 최규철)가 광주·전남 지역예술가를 지원하는 '2016년 지역예술가 육성사업 레지던시프로그램' 대상자(팀)를 26~30일 접수 받는다.

지난해까지 미술 분야 대상자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연분야까지 참여 폭을 넓혔다. 선정된 팀들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홍보, 결과물 발표회 지원, 시티투어 등을 지원받는다. 입주기간 창작, 발표, 오픈스튜디오, 지역주민 연계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해야한다.

이번 레지던시프로그램은 지역예술가 육성을 위해 광주예총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kjart.or.kr) 참조. 문의 062-528-92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